

광주국세청 '부실과세' 전국 최고

김효석 의원 "세금 불복 등 이의신청 인용률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아"

광주지방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아 '부실과세'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1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과 이의신청 인용률 모두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

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광주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은 65.9%로 전국 평균 채택률(29.8%)의 2배를 웃돌면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41.0%, 42.3%로 6개 지방청 중 1위였다.

이의신청 인용률도 최근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을 제외하고는 6개 지방청

순위에서 2005년에는 5위, 2006년에는 6위, 2008년 4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4.6%로 5위를 차지했다.

납세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지에 부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후 단계인 이의신청 인용률까지 높다는 것은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석 의원은 "이는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높여 납세 순응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과와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증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9일 서울에서 열린 버드 프리미엄 생맥주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부드러운 거품, 신선한 맛과 향을 유지한 버드 프리미엄 생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비맥주 광주공장 '최상의 생맥주 맛' 대중화

'버드 프리미엄' 400ml 1잔 4000~6000원 출시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고급 생맥주 만든다.

오비맥주는 19일 '버드 프리미엄 생맥주(Bud premium draft)'를 출시하고 생맥주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버드 프리미엄 생맥주는 전량 광주공장에서 제조한다.

이 제품은 특히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과 130년 전통의 '비치우드'

숙성 방식으로 양조돼 최상의 생맥주 맛을 구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오비맥주는 고급 생맥주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최상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신선한 생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우선 유명한 생맥주 집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소비자 가격은 400ml 전용잔 기준으로 4천~6천원선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새로 출시한 버드 프리미엄 생맥주는 전량 광주공장에서 제조한다"며 "집체돼 있는 생맥주 시장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세관 세수 263억 손실 왜?

LG전자 경기 평택공장 보세공장 지정 돼 이노텍 수입 휴대폰부품 통관절차 사라져

광주본부세관이 최대 고객인 LG이노텍의 이탈로 인해 263억원의 세수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경기 평택공장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서 부품 생산하는 LG이노텍 광주공장의 통관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9일 광주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월 말 현재 38.5%에 머문 광주세관의 세수입 목표 진도를 저조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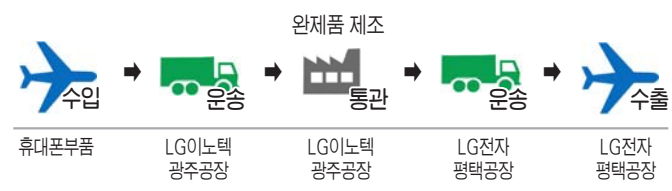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세관은 올 세수목표를 1천57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8월 말 현재 606억원의 세수를 올려 진도율이 38.5%에 그쳤

고 세수입도 전년 동기대비 43%나 급감했다.

이는 그동안 보세공장이 LG이노텍 광주공장이 수입한 휴대폰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일반공장이 LG전자 평택공장으로 보낼 때 통관절차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4월 초 LG전자 평택공장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서 통관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관은 과세를 하지않는 보세공장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공장으로 제품을 운송할때 8%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보세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수입물품을 이송할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광주세관은 이에 따른 세수입 손

■ LG이노텍 광주공장 통관 흐름도



※LG전자 평택공장 보세공장 지정으로 4월부터 통관절차 생략

실을 약 26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광주세관의 올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 것은 LG이노텍의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광주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광주시와 협의해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세관 관계자는 "통관절차만 사라졌고 물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타격은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서는 최대 고객을 잃어 세수입 감소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500억 규모 신안 '새천년대교' 수주전

대우건설·대림산업 설계평가 1위

총 5천500억원 규모의 신안 압해~안대간 '새천년대교'건설공사에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수주에 한발 다가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일 "새천년대교 건설공사 1·2공구에 대한 설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공구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에서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경쟁사보다 설계점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천409억 규모의 1공구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86.27점을 얻어 SK건설(79.27점), GS건설(80.60점)을 제쳤다.

2공구(3천88억)에서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설계 점수 83.61점을 받아 경쟁사로 나선 삼성물산(80.64점), 현대건설(81.72점), 현대산업개발(77.11점)보다 앞섰다. 금호산업은 2공구에서 18%의 지분을 갖고 대림

산업과 팀을 이뤄 수주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으며 남양건설(11%), 동광건설(11%), 해동건설(5%) 등도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반면, 남양건설은 1공구에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2공구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경쟁사에 뒤졌다. 금광기업도 2공구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새천년대교 건설공사는 교량 7.26km와 교량 양측 접속 도로 3.54km 등 총 연장 10.8km를 건설해 압해도와 압태도를 연결하는 공사로, 조달청은 이번주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한 뒤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년 창업자금 지원

光銀-신보호남본부 협약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19일 '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100%의 전액 보증과 함께 0.5%의 낮은 고정 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위험 부담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동시에 줄여 주기로 했다. 광주은행도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특별 우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노갈등' 지역경제 망칠라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달 타결된 임금협상 결과를 놓고 '노(勞)-노(勞) 갈등'을 빚고 있어, 모처럼 조성된 노사 상생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우려된다.

1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사측과의 2009년 임금 협상이 마무리된 뒤 일부 노조원들이 협상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총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보류, 무노동 무임금마저 받아들인 대신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을 중단시

킨 것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9일 개최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의 노조 임원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결의문이 제출되면서 대회가 폐회되는 등 우려폭질을 겪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일부 노조원들이 '정리하고 철해,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위원회(가칭 정투위(준))'명으로 대자보를 내고 집행부의 임금협상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수용했지만 정리해고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협상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정리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노사 협상 결과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받아들여진 만큼 현 집행부에 대한 반목과 갈등 대신 경쟁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위기를 딛고 일어 서려면 생산 현장의 분위기가 다시는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올 임금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의 직장폐쇄와 정리하고 명단 통보 등으로 나선 사측에 맞서 공장 잠거파업 등 극단적인 대치를 벌이다 지난달 5일 열린 제 24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정리하고 철회 등에 전격 합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